



주 제:	“증거자의 삶”	“주님 세례 축일”	2008년 1월 13일
복음 묵상:	마태 3,13-17	이사 42,1-4.6-7	사도 10,34-38

아무리 미사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당신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성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말입니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는 바로 그 곳에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품위를 부여하시고, 그 부르심을 실현할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 가려놓았다면 그 커튼을 찢어보십시오. 그 커튼을 찢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유혹이나 욕망이 밀려오더라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장 준혁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가르침 ~기도가족과 나눔-기도~

☺ 기도는 생명이다. 한번 기도가 탄생하면 지속 된다. 생명에는 하느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 함께한다. 그래서 시간을 거두는 순간 죽음이라 한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시간을 거두는 순간 소유도 함께 잃고 만다. 기도는 오직 대상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그 대상은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기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더라도 한 분이신 그 분은 꼭 참석하신다.

시간에는 기회라는 단어가 따른다. 기차를 놓치면 기회도 놓치고 만다. 그래서 기도는 기회이다. 오늘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우리에게는 험악하게 들리겠지만 '떼'기도를 소개한다.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이다. 두 명 이상이면 '떼'를 형성한다. 누군가 기도 지향을 소개한다. 소개에는 간단히 지향 대상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마치 대상자가 참석해 있듯이 이름, 나이, 주위 환경 처지 등 소개를 끝마치면 기도대상 안으로 각자 나름대로 들어가서 10초정도 친목 및 묵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자신이라는 마음이 되면 기도가 더 효율화 된다.

우리가 대상 안에 하나가 될 때 '기도는 살아 있는 기도'로서 생명을 갖는다. 떼 기도는 손을 함께 잡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영이 하나가 되었기에 그 모습이 하나이신 하느님께 기쁘게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떼 기도에도 응답이 따른다. 기도 대상을 소개 한 이는 필요에 따라 Follow - up 해주면 도움이 된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은 더 중요하다. 기도한 이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성장 시켜준다. 한 예로 최근 수요 기도회에 '두위'라는 38 세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 pickup 해서 길을 건너다가 Muni - bus 에 치어 뇌에 충격으로 코마에 빠져 있던 중 떼 기도에 소개되었다. '두위'도 의사이지만 두 형들도 UCSF 의사로서 그의 두 형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던 3주를 넘기면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 5주째 Wheel chair 를, 그러나 이번 주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 두위 가족은 기적이라고 알려준다. 또 한 예는 외교인인 요한은 폐암이다. 그의 체력이 건디어 낸다는 희망을 갖고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병원에서 '레디에이션 및 키모' 치료를 시작하여 11월에 해냈다.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확율은 50%로 미만이었는데 인제 체력을 회복하여 후반기 치료로 넘어가서 이제 운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자신이 하던 사업도 정리 할수 있는 상태이다. '떼'기도는 계속 Feedback 하면서 계속 간다.

이를 통해 하느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된다. 그리고 기도 이 면에 삶 속에 주어지는 희생을 받아내면서 기회라고 믿고 산다는 것. 과거에는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혹시 남을 인식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떼' 기도 하면서 조금 해방 되어 가는것 같다.

관습에는 물질적 명예적 기회만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거룩한 시간을 통한 기회 역시 한번 바라 본다면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주님 !!!! 저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회 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회		2008년 1월 9일
진행: 신 미카엘라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4 명
복음 묵상: 시편 84		

참석 : 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이 캐롤린, 강 글라라, 김 모니카, 김 까리따스,
 석 레오, 신 미카엘라, 신 스테파노, 권요셉, 이 아네스, 박 세실리아, 박 알베르토(목요) 총 14 명

나눔 :

- * 오늘은 2008년 한해동안의 진행 방법과 개선점에 대하여 나눔을 가졌습니다.
- * 기도회전에 잠깐이라도 봉사자 모임을 했으면 좋겠음.
- * 성령기도회안에서 한주에 한사람씩 <가족>을 위해서 고리기도를 했으면...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 * 주제는 매주 바꾸지 말고 한달에 한번 정도 바꾸어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음
 (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다음주는 그사랑 실천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형식...
- * 누가 진행을 하든 전 진행자가 기도회 말미에 다음주 말씀을 알려주면 다음주에 준비된 기도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 가르침 봉사자는 외부사람이 와서 하면 더 좋을것 같음.
- * 고리 기도는 기도전에 각가정 마다 원하는 기도를 적어와서 그때 그때 뽑아서...
 기도 응답(?)을 알려줄것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셨다는식의 말은 절대하면 안됨>
 - 진행자 추천 : 이 필로메나, 권 요셉 두분.
- * 백개의 기도보다 한개의 기도가 이루어졌을때 기쁨은 더 크다.
- * “너의 이웃것을 위해 기도하기전에 너의 필요한것,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것이다”
 라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예언 말씀이 떠올라서 ,결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 * 하느님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심.

예언 말씀

- 나는 사랑 자체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내 자녀임을 안다
- 나는 너희 각자에게 은사를 내려주었다 너희들의 지혜를 공동모임에서 나누어라
 너희들의 은사를 완전히 활용할 때 나는 완전해진다

공지사항

- * 올해는 모든 기도회가 하나됨을 느낄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 * 5월 17일 일일 피정 있을 예정

건의 사항

- 성심 성가대를 위해서 점심 식사 대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 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분 명상

" 당신 때문에... "



힘들어 하지 마세요,
 좌절 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당신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맞이꽃 님>